

합평, 농업정책실 조직개편 후 농업 성과 '뚜렷'

30개 사업 보조 246억 포함 365억 6000만원 공모사업 추진 중 농업로컬푸드 확대 개설·농산물 전국 유통 MOU... 농정업무 '우수상'

합평군이 2022년 말 농업·농촌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산과를 농업정책실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이후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농업정책실에서는 올 한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등분서주 한 결과 30개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246억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사업을 원활히 추진중에 있다.

신설된 먹거리정책팀에서는 농식품부 지역먹거리계획 패키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7년까지 국비 22억 5천만원을 확보, 총 사업비 45억 5천만원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및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직매장에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와 더불어,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농업로컬푸드 확대 개설 업무협약 및 bh그룹과 농산물 전국 유통협약 등 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키워나가고 있다.

친환경농업 분야에서는 합평읍과 신광면에 국도비 11억 포함 20억 사업비를 가공공장 및 저온저장 시설

구축, 대동면에 친환경 작업장 구축비 15억 등 총 50억 6천만원, 9개 사업을 추진해 친환경농업 시설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식량작물 분야는 총 5개 사업에서 국·도비 5억6천만원을 확보해 농기계 지원 등 식량작물 육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농업분야는 신소득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 발자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등 4개 공모사업이 선정 후 추진중이며 내년에는 지역특화화입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해 다양한 지역특화품목 개발에 앞장서며 농업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스마트 농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러한 농업정책실의 성과는 지난 10일 전라남도 주관 2023년 농축산식품분야 농정업무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1,500천원의 포상금을 지원받는 등 대외적으로 크게 인정받았다.

이상의 합평군수는 "합평군의 농업 강화와 발전을 위해 개편한 농업정책실의 성과가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평의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정책 확대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평=김용희 기자

스마트 국토 엑스포 지적 세미나 연구과제 발표 구례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 수상

구례군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스마트 국토 엑스포 지적 세미나 연구과제 발표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지적 세미나는 국토의 디지털 전환, 대국민 지적 서비스 혁신, 지적측량 기술 분야 등 지적 행정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지적 세미나에서 한국 국토정보공사 사장상을 받은 종합민원과 양다원 주무관은 "드론을 활용

한 지목변경 업무 처리 방안"을 주제로 연구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측량 없이 지적의 경계를 확인하는 방법 소개와 드론을 통한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 사례 공유가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양다원 주무관은 "향후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지적 재조사 업무에 드론을 접목시켜 고품질의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제1회 고흥군 보훈단체 한마음 위안 행사 "보훈 가족이 존경과 예우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쓸 터"



고흥군은 지난 13일 고흥군민회관에서 고흥군 보훈단체협의회(회장 배용성) 주관으로 공영민 군수를 비롯한 이재학 의장, 최정길 전남동부 보훈지청장, 고흥군 보훈단체 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고흥군 보훈단체 한마음 위안 행사'를 가졌다.

이날 개최된 보훈단체 한마음 행사는 고흥군 8개 보훈단체가 지난해 8월 통합단체로 출범된 후 개최되는 첫 행사여서 더 뜻깊은 행사라 하겠다.

이날 고흥군 보훈단체협의회에서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영민 군수에게 보훈단체 회원들의 감사 마음을 담아 송덕패를 전달했다.

배용성 고흥군 보훈단체협의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보훈단체협의회가 결성되고 처음 개최되는 위안 행사여서 매우 감격스럽다"라며, "보훈단체 위상을 높이고 보훈이 일상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영민 군수는 축사를 통해 "보훈단체 회원님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라며, "국가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보훈 가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 수당, 보훈 가족 경조사비 및 명절 위문품 전달 등 다양한 보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신용범 기자

순천 'One City One Book' 내년 후보도서 시민투표 진행

순천시가 오는 20일 까지 2024년 한 해 동안 순천시민이 함께 읽을 '2024년 순천시 One City One Book' 후보 도서에 대한 시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04년 임철우 작가의 소설 등대를 시작으로 올해로 20년을 맞는 순천시 One City One Book은 시민 추천과 투표를 통해 한 권의 책을 정하고 순천시민이 함께 읽는 범시민 독서진흥 운동이다.

순천시는 선정된 도서를 활용해 작가 초청강연, 독서감상문 대회, 독서토론 온라인 책 읽기 등 다양한 독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One City One Book은 순천시민들 추천받은 94권의 후보 도서에서 순천시립도서관 자료선정심의회 회의 를 통해 45권을 선별하였으며, 순천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시민선정단 및 자료선정심의회 투표로 8권의 후보도서를 추가로 선별하고 회의 를 통해 3권의 후보도서가 결정됐다.

이번 순천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1권의 One City One Book이 선정된다. 시민 투표는 순천시립도서관 누리집 및 구글폼을 통한 온라인 투표 방식과 순천시립도서관(삼산, 그림책, 연향, 기적)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담양, 루프탑가든형 담양시장 입점상가 사업설명회 오는 24일 개최... 내년 개장, 50여 개 입점 상가 모집

담양군은 오는 24일 담빛농업관에서 내년 중 새롭게 문을 열 담양시장의 입점 상가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담양군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루프탑가든형 담양시장 재건축공사의 준공이 내년 3~4월로 예정됨에 따라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서는 상가 입주 조건, 품목, 상가 운영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최초 현대식 전통시장인 군산시장 운영 사례를 통해 향후 상가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담양시장은 육상을 활용하는 '루프탑가든'형 복합상가로 건축하고 있으며 1층은 시장 기능을 강화한 상설점포 40여 개와 2~3층은 먹거리 장터와 카페 등 8개 점포로 구성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재건축공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된 점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시장 내 공간구획을 마무리하고 입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담양만의 특화된 상업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근 도시 전문 경영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전했다.

/담양=조승재 기자



완도군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 기관'

완도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주최한 '2023년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성과 대회'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 대회는 전국 82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건강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민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에 기여한 공로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완도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매년 건강지표 분석 및 주민 건강 요구도 조사를 실시해 만성질환 예방, 신체활동, 영양 관리 등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비대면 걷기 챌린지 ▲주민 걷기지도야 ▲양성 ▲주민 주도 걷기 동아리 ▲야간 노르딕 워킹 교실 등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일상 속 걷기 실천과 신체 활동 증가에 힘썼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요구에 기반한 참여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해남, 발기반 정비사업 박차... 사업비 22억원 확보 육천 팔산 신규지구 선정 사업 착수... 계속지구 3개소도 추진

해남군은 2024년 발기반 정비사업으로 육천 팔산지구 신로 지정을 비롯해 계속사업 3개소 등 총 4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비 22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육천 팔산지구는 30.3ha에 대해 총사업비 8억 7,800만원을 투입해 농로, 배수로 및 수리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농업기반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6,250만원 사업비를 투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하반기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현산 부림 110.8ha(총사업비 32억 1000만원) 황산 병은 130.8ha(총사업비 37억 7700만원) 화원 절골 59.5ha(총사업비 17억 2400만원)에 대해서도 내년 21억 2500만원을 투입해 계속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발기반 정비사업은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 확포장, 배수로 정비, 저류조 설치 등 농업기반생산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영농환경 개선과 주민불편 해소에 효과가 커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육천 팔산지구 발기반 정비사업 신규지구 선정으로 인해 그동안 불편을 겪고 있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된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게 되어 발자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순천시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 수상

순천시는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 주관 '2023년 책 읽는 대한민국 시상식'에서 '제8회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을 수상했다.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는 2014년부터 건전한 독서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책의 소중함과 책 읽는 즐거움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는 우수 기관 및 개인을 발굴·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6개 지자체를 책 읽는 지자체 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지난 9일 서울시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여했다.

순천시는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해 ▲One City One Book ▲북스타트 ▲독서동아리 활성화(동아리 리더 역량강화, 카카오톡) ▲전 직원 및 직장 도서 경영 ▲도서지원사업(꿈찾기, 전 시민 좋은 책) 등을 추진하고, 시민이 직접 책을 쓰고 출판할 수 있도록 ▲순천사람이 쓴 책 코너 ▲책 쓰기 프로그램 등 운영하여 도서관 문화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서문화 기반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조순의 기자



광양, 공공배달앱 '먹개비' 연말 이벤트 20일부터 할인쿠폰 5000장 제공·첫 주문 만원 할인

광양시는 전라남도 공공배달앱인 '먹개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 25일까지 연말 할인쿠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배달앱 '먹개비'는 15%의 낮은 중개수수료로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 광양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어 지난해 7월 공식 출시 이후 꾸준한 매출을 보이고 있다.

광양시는 연말을 맞아 "Welcome 먹개비! 첫 주문 '만원 할인'", "2023 연말에는 먹개비와 함께해요" 등 2개의 이벤트를 진행한다.

"첫 주문 '만원 할인'" 이벤트는 먹개비 앱 첫 주문 시 10,000원 즉시 할인쿠폰을 선착순 1,000명에게 지급한다. 또한, 기존회원 선착순 4,000명을 대상으로 '2023 연말에는 먹개비와 함께해요'라는 주제로 5,000원 즉시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1일 1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할인쿠폰 총 5,000장을 배부해 많은 시민이 공공배달앱 '먹개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이 15%의 낮은 수수료와 광고비 무료, 가맹점 가입비가 없다는 장점을 살려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조순의 기자